

#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 발전동향과 충남의 대응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I. 문제 제기

### II.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의 개황과 주요정책 동향

가. 황·보하이 연해지구 개황과 특징

나. 황·보하이 연해지구 관련 지역발전정책 동향

다. 주요 지구별 현황과 발전정책

### III. 충남의 대응전략

## I. 문제 제기

- 중국의 부상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서해안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작업을 통해, 중국의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sup>1)</sup> 연해지구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환황해경제권’, ‘서해안축’, ‘서해안비전’ 등의 구상과 계획 등이 다양한 형태로 수립, 작성되어 왔으나, 전략적 접근에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
- 주요 이유는 중국내 타깃지역 선정과 지역 현황 및 주요 정책동향 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연구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 소위 ‘환황해권’의 공간적 범위와 기본개념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중국의 황·보하이(黃渤海) 연해지구의 현황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각 국가 및 그 지방정부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환황해권’의 개념과 공간적 범위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크다.
- 따라서, 우선 충남의 입장에서 ‘환황해권’의 개념과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 설정하고, 그 기초 하에 전략추진체계, 지역별 당면 과제 도출 및 단계별 추진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 2014년말부터 충남이 주도하여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자는 담론과 목표가 제시되었고,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 진단하고, 대(對)중국 전략

1) 우리의 ‘서해’, ‘황해’라는 통칭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중국 현지 발음인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를 사용한다. 중국의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 해역경계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목표와 추진전략, 단계별 과제 등을 구체화, 체계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바, 이러한 담론과 목표, 미션이 제기된 주요 동기와 배경은 ‘중국의 부상’이었고, 실천과제와 추진을 위한 전제는 충남도의 실천역량과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였다.

- 따라서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설계는 응당 대(對)중국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환황해권 프로젝트’의 미션과 과제는 기 제시된 충남지역 현안과제 및 사업들을 ①충남도 자력으로 추진 가능한 것과 ②중앙의 예산지원 획득을 위한 국책사업화 대상으로 구분하고, 대(對)중국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화하고 실천전략을 짜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이글에서는 이 같은 문제인식과 관심 하에 충남도의 대(對)중국 전략 대상으로서 중국의 황하이(黃海) 및 보하이(渤海) 연해지구, 즉, 황·보하이 연해지구의 현황과 중국 정부의 주요 관련정책 동향, 그리고 충남에 주는 정책적 함의와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 II.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의 개황과 주요정책 동향

### 가. 황·보하이 연해지구 개황과 특징

#### 1) 황·보하이 연해지구 개황

- ‘황해’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세력을 다투던 삼국시대부터 동북아의 연안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지 간 교역·교류가 ‘지중해’보다 활발하게 진행된 바다였고, 백제를 포함한 ‘환황해권’ 국가와 지역들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은 관건 요소도 ‘황해’를 통한 해상 교역·교류전략이었다.
- 백제는 한반도의 서해와 남해 바다에 연해 있었고, 예성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많은 강과 유역을 활동무대로 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국가였고, 이들 강과 황해바다를 통한 대외 교역 및 교류, 그리고 동맹전략을 활발히 추진했던 국가이다.
- 황·보하이 연해지구는 보하이(渤海)와 황하이(黃海) 연해지구로 구성된다.
- 보하이(渤海) 연해지구는 ‘환보하이(環渤海)지구’라고도 불리며, 보하이만(渤海灣)에 연한 랴오둥(辽东)반도 서측과 화북평원, 그리고 산둥반도 북부로 구성된다. 단 통계자료 이용의 편리를 위해 랴오닝성과 산둥성 전체를 포함시키는 게 보통이다.

- 산둥성은 황하이(黃海) 연해지구와 중복된다. 황하이(黃海) 연해 지구는 산둥성과 장쑤성, 상하이시로 구성된다.
- 보하이 연해 지구 내의 주요 도시는 직할시인 베이징과 톈진, 랴오닝성의 선양(沈陽)과 따리엔(大連), 허베이성(河北省)의 탕산(唐山), 바오딩(保定), 스자좡(石家莊), 그리고 산둥성의 지난(濟南)과 칭다오(靑島),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등이다.
- 황하이 연해 지구 내의 주요 도시는 보하이 지구와 중복되는 산둥성의 남쪽으로 장쑤성의 난징(南京), 런윈강(連雲港),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옌청(鹽城), 그리고 중국의 경제중심 대도시인 상하이가 있고, 장강삼각주의 주요 구성부분인 저장성의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샤오싱(紹興) 등이다.
- 황·보하이 연해 지구는 중국 북방지구의 인구, 산업, 도시의 밀집지역일 뿐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 한편, ‘황·보하이 지구’의 범역을 보다 넓게 보면, 농업사회 시절에 자연지형과 하천유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황하(黃河), 화이하(淮河), 하이하(海河) 유역인 황화이하이(黃淮海) 지구로 까지 확장된다.
- 황화이하이 지구는 황하(黃河), 화이하(淮河), 하이하(海河) 3강 및 그 지류로 충적된 황화이하이 평원(華北平原)과 인접한 산둥의 중남부 구릉과 산둥반도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만리장성, 남쪽으로는 톡바이산(桐柏山), 다비에산(大別山), 서쪽으로는 타이항산(太行山)과 위시푸뉴(豫西伏牛) 산지, 동쪽으로는 보하이와 황하이 연안지역까지 포함한다.
- 행정구역상으로는 베이징, 톈진(天津), 산둥성의 전부와 허베이성과 허난성(河南省)의 대부분, 장쑤성(江蘇省)과 안후이성(安徽省)의 화이하(淮河) 이북 지구까지 포함하며, 총토지면적이 46.95만km<sup>2</sup>이다.
- 중국의 보하이(渤海)와 황하이(黃海) 범역 기준에 따르면, 보하이(渤海)는 랴오둥(遼東)반도, 산둥반도, 그리고 화북(華北)평원에 의해 ‘C’자형으로 둘러싸인 내해(內海)이며, 황하이(黃海)’는 보하이와의 경계구분선(分界線)인 랴오둥(遼東)반도와 산둥반도 끝을 연결하는 선의 서쪽 해역을 가리킨다.
- 중국 황하이와 동하이(東海)와의 경계선은 장강(長江) 하구 북안(北岸)의 치둥(启東) 남단과 한국의 제주도 서남단을 연결하는 선이다.<sup>2)</sup>

2) 중국 대륙 동부의 해안선은 그 길이가 길고, 구간마다 다른 4개의 이름으로 부른다. 즉, 랴오둥(遼東)반도와 산둥반도로 둘러싸인 내해(內海)인 ‘보하이(渤海)’가 있고, 다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황하이(黃海), 동하이(東海, 동지나해, East China Sea), 난하이(南海, 남지나해, South China Sea)라 불리는 4개 해역으로 구분된다. 보하이와 황하이의 경계선은 랴오둥(遼東)반도 남단 라오티엔산(老鐵山)과 산둥반도 북안(北岸) 펑라이(蓬萊) 동단을 연결하는 선이고, 황하이와 동하이(東海)와의

- 따라서 ‘환황해권’에 포함되는 중국 동부연해지구의 성(省)급 지구는 중국의 보하이(渤海)와 황하이(黃海) 연해지구내의 성, 직할시가 되며, 북에서 남으로 보하이 연해지구내의 랴오닝성(遼寧省), 허베이성(河北省), 베이징, 톈진, 그리고 보하이 연해지구와 황하이 연해지구의 경계 및 중북지구인 산둥성, 그리고 황하이 연해지구내의 장쑤성(江蘇省), 상하이 까지 포함한다.

## 2) 황·보하이 연해지구 발전동향

- 충남의 입장에서 중시해야 할 곳은,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도시군, 산둥반도 도시군, 랴오닝(遼寧) 중남부 도시군, 그리고 장강삼각주 도시군이다.
- 환보하이(環渤海)지구라고도 불리는 보하이(渤海) 연해지구는 토지자원이 풍부하고, 항구기초시설이 양호하고, 산업 및 과학기술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최근에는 경제발전속도 측면에서 비교적 강력한 후발우세를 보이면서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 지구를 앞지르고 있다.
  - 중국정부는, 최근에 세계적 범위에서 새로운 산업구조 조정과 승급이 진행되고, 기술창신(技術創新)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연해지구 개발·개방 정책의 무게 중심을 남에서 북으로 이전하면서, 황·보하이 연해지구에 대한 지역발전전략을 더욱 중시, 강화하고 있다.
- 베이징-톈진-허베이 지구는, 베이징과 톈진 두 대도시의 우세와 특색이 매우 강해서, 이들 중심 대도시와 지구 내 여타 중소도시 간의 수평적 연계는 미약하고, 수직적 연계가 강하다.
  - 베이징은 정치, 문화, 그리고 고급과학기술의 우세를 지니고 있고, 톈진은 항구와 제조업의 우세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에 국무원이 톈진시가 제출한 ‘빈하이신구종합연계개혁시험방안(滨海新区综合配套改革试验方案)’을 비준한 후에 톈진시의 경제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지구는 베이징-톈진을 중심축으로 산둥반도와 랴오닝성(遼寧省) 중남부 도시 밀집구를 포함한 환보하이만지구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 톈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와 랴오닝성 연해경제지대, 산둥성 황하삼각주 3대 경제신구는 이미 중국 국가급 발전전략에 포함되었다.
  - 톈진 빈하이신구는 1994년에 건립되었고 2006년에는 중국 국가발전총체전략에 포함되었다.

---

경계선은 장강(長江) 하구 북안(北岸)의 치둥(启东) 남단과 한국의 제주도 서남단을 연결하는 선이다. 또한 동하이와 난하이(남지나해)의 분계선(分界線)은 타이완섬(台灣島) 남단과 푸젠(福建: 閩), 광둥(粵) 양성 경계선과 연결한 선, 즉, 광둥성 난아오다오(南澳島)와 타이완섬 남단의 어완비(鹅銮鼻)를 연결하는 선이다.(台灣海峽은 동하이에 속함.)

- 산둥 황하삼각주와 랴오닝 연해경제지대는 각각 2000년과 2006년에 건립된 후, 2009년 7월과 11월에 국무원 비준을 받고 중국 국가발전전략에 포함되었다.
- 허베이성 보하이신구(渤海新區)와 차오페이티엔신구(曹妃甸新區)는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중공 허베이성 위원회와 성정부 비준을 받고 건립되었다. 이들 5개 경제구의 면적 합계는 총 9만km<sup>2</sup>로 선전경제특구의 45배, 상하이 푸둥신구의 74배 규모이다.
- 장강삼각주(長三角)지구 도시군은 중심도시와 도시밀집지대와 도시네트워크 규모 측면에서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 현재까지의 발전추세로 볼 때,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도시군, 산둥반도 도시군, 랴오닝(遼寧) 중남부 도시군 모두 급속한 발전속도로 세계 10대 도시군 순위 안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각 경제구 현황비교(2009) (단위: %)

경제권	경제구	면적(km <sup>2</sup> , %)	경제총량(억위안, %)	산출밀도(억원/km <sup>2</sup> )
환보하이	톈진(天津) 빈하이신구	2270(19.0)	3810.7(50.7)	1.68
	遼寧 연해경제지대	56500(38.2)	7835.3(52.0)	0.14
	산둥 황하삼각주	26500(16.9)	5014.8(15.3)	0.19
	河北 曹妃甸新區	1944(1.0)	650(3.8)	0.33
	河北 渤海新區	2375(1.3)	240(1.4)	0.10
주강삼각주	深圳특구	1992(100.0)	8201.3(100.0)	4.12
장강삼각주	上海浦东	1210(19.1)	4001(26.6)	3.31
	苏州工业园	288(3.4)	1120(14.5)	3.89

주: ()는 소속 성, 시내 점유비중

출처: 2011 中国城市统计年鉴, 14쪽

- 2009년 보하이 연해지구내 항구중 화물처리량(吞吐量) 1억톤을 초과한 것은, 톈진 빈하이신구내의 톈진항(3.81억톤), 랴오닝 연해경제지대내의 따리엔항(大連, 2.72억톤)과 잉커우항(營口, 1.76억톤), 산둥 황하삼각주의 칭다오항(靑島, 3.15억톤), 르자오항(日照, 1.81억톤), 옌타이항(1.24억톤) 6개 항구이다.
- 이중 컨테이너 처리량이 100만 TEU를 초과한 항구는 칭다오항(1026.2만TEU), 톈진항(870.4만TEU), 따리엔항(457.7만TEU), 잉커우항(253.7만TEU), 옌타이항(140.1만TEU) 5개이다.
- 경제구(經濟區)간 분업 및 주도산업 측면에서 보면, 톈진 빈하이신구는 석유화학, 강철야금, 기계전자가 주도하는 종합형 공업집적구이고, 랴오닝(遼寧) 연해경제지대와 허베이의 차오페이티엔(曹妃甸)과 보하이(渤海)신구는 중형기계, 강철, 조선, 화학 위주의 중형공업기지이고, 산둥성 황하삼각주(山東黃河三角洲)의 주요 산업은 전자, 기계, 석유화학, 경방, 식품 공업 등이다.

- 산업내부에서도 5개 경제구간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전자정보산업의 예를 들면, 텐진빈하이신구는 미국의 모토롤라, 일본의 산요(三洋), 한국의 삼성 등 대형이동통신기업이 입지하고 있고, 가장 완성된 휴대폰 생산 및 연계공장과 설비기초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춘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랴오닝성 연해경제지대는 파리엔(大連)을 선두로 외곽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키고, 소프트웨어 산업기지를 초보적으로 건립 완성했다. 산둥성 황하삼각주는 웨이팡(濰坊) 등 신흥전자공업도시를 중심으로 기계전자공업산품, 디지털회로 통제교환기 등 중점업종과 후방연계 효과가 비교적 강한 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 자동차 산업은 환보하이지구 전 지구에 걸쳐서 중점산업으로 발전하는 중에, 4대 국가 승용차 생산기지중 하나로 지정된 텐진(天津)은 ‘샤리(夏利)’로 대표되는 소형 승용차 위주이고, 산둥성과 랴오닝성은 중형자동차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 강철산업은 허베이성에 입지한 수도강철(首钢), 탕산강철(唐钢)은 특대형 강철기업이나, 텐진은 중소형 강재(剛才) 기지중 하나로 우수질의 강과 저합금강, 특수강 위주이다.

#### 나. ‘황보하이’연해지구 관련 지역발전정책 동향

#####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역발전정책의 흐름

- 개혁개방 이후 수립된 7차 5개년계획(七五計劃: 1986~1990)부터 전국을 거시적 관점에서 동부, 중부, 서부의 3대 경제지구로 나누고(<그림 1> 참고), 이들 지구의 현실적인 능력과 발전단계의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림 1> 3대 경제지구 획분 현황

- 이후 동부연해지구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단,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돌출되었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 1978년 중부지구의 1인당 GRP는 동부연해지구의 45%였으나, 2000년에는 37%로 떨어졌고, 서부지구는 1978년 41%에서 2000년 32%로, 동북지구는 1978년 79%에서 2005년 57%로 감소했다.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거시적 효율과 국민경제 발전의 총체적 속도 확보를 목표로 동부연해지구에 각종 특구를 설치하고, 생산력을 집중 배치하는 불균형 거점발전전략을 추진했다.
  - 이에 따라 동부연해지구와의 경제성장 격차가 심화되었고, 중서부 내륙지구의 불만이 경제문제에서 사회, 정치, 민족 문제로 까지 확대, 돌출되었다.
- 1990년대말부터 동부연해지구에 편중된 불균형 발전과 지역간 격차 문제를 중시하고, 생산력 배치의 중점을 동부지구에서 중서부 내지(內地)로 이전하면서, ‘서부 대개발’, ‘동북 진흥’, ‘중부 굴기’ 전략을 연이어 발표, 추진했다.
- 또 한편으로는 중서부지구 ‘향진기업(鄉鎮企業)’을 지원육성했다.
  - 중국 국무원은 1993년 2월, 중서부지구 및 소수민족지구 각급 지방정부에 향진기업의 지원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을 지시했고, 동시에 ‘향진기업 동서협력사업계획(東西協力事業計劃)’을 수립하고, 동부와 중서부 향진기업간 횡적 경제연합을 적극 장려했다.
- 또한, 중서부지구 교통망 확충에 투자를 집중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에 개통한 난쿤선(南昆線: 南寧-昆明)과 2006년 7월에 건설 개통한 칭하이-시장(티벳)간 칭장철도(靑藏鐵路: 靑海 西寧-西藏 라사)<sup>3)</sup>이다.
  - 칭장철도 개통의 의미는, 중공 중앙의 변경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고 선로연장이 가장 긴 고원지대에 고난도 토목공정을 극복하고 건설한 철도이고, 중국 국토면적의 1/8에 달하는 시장(西藏: 티벳)지구에 처음 건설 개통한 철도라는 점이다.
- 이어서 중국의 동부와 서부지구를 관통하는 2개 노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하나는 장쑤성 렌윈강(連雲港)에서 간쑤성 란저우(蘭州)와 신장 위그르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까지 롱하이(隴海)철도를 따라 건설했고, 다른 하나는 상하이에서 쓰촨성 청두(成都)까지 구간이다.

3) 칭장철도(靑藏鐵路)는 중국의 21세기 4대 공정중의 하나로서, 총연장 1,956km이고, 이중 서닝(西寧) - 거얼무(格爾木) 구간 814km은 1984년부터 운영되었고, 거얼무-라사 구간 1,142km 구간 공사가 2001년 6월 29일 착공, 2006년 7월 1일부터 개통, 운행을 시작했다.

- 2007년 11월에 개최한 중공 17차 당대회 이후에는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和諧社會)’ 목표를 확정했다. 즉,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轉變)과 질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개혁, 사회영역과 문화영역의 개혁은 종합성, 연계성(配套性), 협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지역간 협조발전, 도농통합발전, 자연과의 조화(和諧) 등의 정책기조를 더욱 강조했다.
- 2010년 10월, 중공 17차 5중전회에서 통과된 12차 5개년계획(2011~15) 건의에서는 “동부연해지구의 발전을 승계하면서 서부를 발동시킨다”는 ‘승동계서(承東啓西)’와 ‘포용성 발전’을 정책기조로 채택했다. 즉, 동부지구의 발전을 계승하면서 중·서부지구와 ‘조화(和諧)’, ‘협조(協調)’, 그리고 ‘포용(包容)’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서부·동북·중부지구의 풍부한 에너지자원 개발과 농공업생산기지 및 교통운수망 건설, 그리고 내수시장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 최근에는 양적 성장을 통한 자본축적과 풍부한 외환보유량을 바탕으로 해외진출(走出去)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체제 출범 후에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 해외경제특구 개발, ‘아시아 기초시설투자은행(AIIB)’ 조직 등을 추진하면서 경제권과 연계 기반시설 건설사업 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일대(一帶)’는 베이징-시안-우루무치-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내륙의 개발축으로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라고도 부르고, ‘일로(一路)’는 취안저우(泉州)-푸저우(福州)-광저우-하이커우(海口)-베이하이(北海)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인도와 아프리카 나이로비를 거쳐 지중해를 잇는 해상교역로를 가리키며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고도 부른다.
  - 주요 목표는 이른바 ‘5통(通) 전략’, 즉, ‘일대일로’연선 국가들 간에 정책, 도로, 무역, 화폐, 민심을 통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①고속철도, 고속도로, 송유관, 광케이블, 항구 등의 기초 인프라 건설, ②환전·송금·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의 금융서비스 확충과 관세·통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무역, 투자환경의 개선, ③유학생 규모 확대 및 공동 학교 설립, 상호 여행규모 확대 등 적극적 문화교류 활동으로 구분된다.
- ‘일대(一帶)’ 4개 노선, ‘일로(一路)’ 1개 노선
  - 북방노선 A: 북미-북태평양-일본-한국-블라디보스톡-훈춘-옌지(延吉)-지린(吉林)-장춘-몽골-러시아-유럽을 연결
  - 북방노선 B는 베이징-러시아-독일-북유럽을 연결
  - 중앙노선은 베이징-시안(西安)-우루무치-아프가니스탄-카자흐스탄-헝가리-파리를 연결



- 중심노선은 랴오닝(連雲港)-정저우(鄭州)-시안-란저우(蘭州)-신장-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
- 남방노선: 취안저우(泉州)-푸저우(福州)-광저우-하이커우-베이하이(北海)-하노이-쿠알라룸푸르-자카르타-콜롬보-콜카타-나이로비-아테네-베네치아를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이다.



<그림 2>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노선 개념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발전정책의 거시적 틀과 목표도 ‘4대 구역(四大板块)과 3개 지지구(支撑区)’신성장 거점과 성장지대 조성으로 조정
- ‘4대 구역’: 동부 발전형태 전환, 중부굴기,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 ‘3대 지지구’: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수도권지구 협동발전, ‘장강유역경제지대(长江流域经济带)’

## 2) 도시발전과 도시군 형성동향

### ① 경제특구의 임무와 역할 변화

-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개혁개방 이래 이룩한 고도의 총량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불거지고 심화되면서,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실험장 임무와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었고, 그 명칭도 ‘종합연계개혁시험구’, ‘자유무역시험구’등으로 바뀌었다.
  - ‘제도특구’, ‘도농통합특구’, ‘민생특구’라고도 불리며, 그 임무도 삼농문제, 환경 및 에너지, 민생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또는 국제금융 및 무역 기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실험으로 바뀌었다.
  - 충칭(重慶)과 쓰촨성 청두(成都)는 ‘도농통합 및 도농 일체화 발전 방안 시험구’로 지정했다.(2007.6)
  - 우한(武汉)도시권과 창샤-주저우-상탄(长株潭)도시군(2007.12): 환경 및 에너지 절약,
  - 상하이 푸둥신구(2005.6), 텐진 빈하이신구(2006.5), 선전(2008.12) 종합연계개혁시험구의 임무는 국제금융 및 무역 기능 경쟁력 강화 방안 탐색이다.
  - 2011년 3월에는 현금시인 저장성 이우(义乌)시를 ‘국제무역종합개혁시험구(国际贸易综合改革试点)’로 지정했다.

### ○ 해외개척과 해외특구 건설

- 최근에는 고속철 등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경쟁, 아프리카 시장 석권 등 해외진출(走出去)과 함께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 전략의 틀 안에서 캄보디아의 시아누크항 특구(西港特区)를 동남아시아의 전략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다.
-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가 최초로 비준한 국가급 해외경제무역합작구(境外经贸合作区)인 시아누크항 특구(西港特区)는 현재 캄보디아내에서 최대 규모이고, 발전이 가장 양호한 단지(园区)이고, 우시(无锡)에 본부를 둔 홍도우집단(红豆集团)이 계획과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 캄보디아 수상 洪森이 중국 방문 시에 특별히 장쑤성 우시의 홍도우집단(红豆集团)을 방문했고, 시아누크항 특구가 ‘캄보디아의 선전(深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②교통망과 발전축

- 철도가 출현하기 이전에 도시간 연계 교통은 주로 수운에 의존했으므로, 이 시기의 도시는 대부분 수운의 주요 통로인 하류(河流)의 교차점 또는 주요 간선 수계상에 위치하고 있었고, 하류를 따라서 대상(帶狀)으로 발전했다.
- 또한, 도시내부의 공간구조도 하도(河道)에 의해 ‘一자’, ‘T자’, ‘十자’형으로 형성되었

다.

-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서 철도가 건설되면서 도시가 하천 향도를 따라서 단일하게 확대되는 패턴에 변화가 발생했고, 지역중심지 결정요인도 수운 보다 철도교통의 영향이 강해졌다.
- 도시군체(城市群體)도 교통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수운중심인 하류연안(河流沿岸)에 집중된 구조에서, 철도역과 철도연선(鐵道沿線)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했고, 도시간의 연계도 보다 강화되었다.
- 도시내부공간구조도 철도에 연결한 선형 또는 방사형 구조가 출현했다.
- 도로(公路) 운수가 주도적인 교통방식이 되고,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고속도로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도시공간이 더욱 융통성있게 확대되었고, 도시인구 규모가 증가하고 도시공간구조가 외연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간 연결철도에 연결한 형태로 발전하던 선형 공간구조에서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확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 도시가 통항능력이 비교적 좋은 하류(河流)나 호수 혹은 철도나 고속도로에 연하고 외부로 확산, 발전하면서, 각종 규모와 층차(層次)의 도시간에 지역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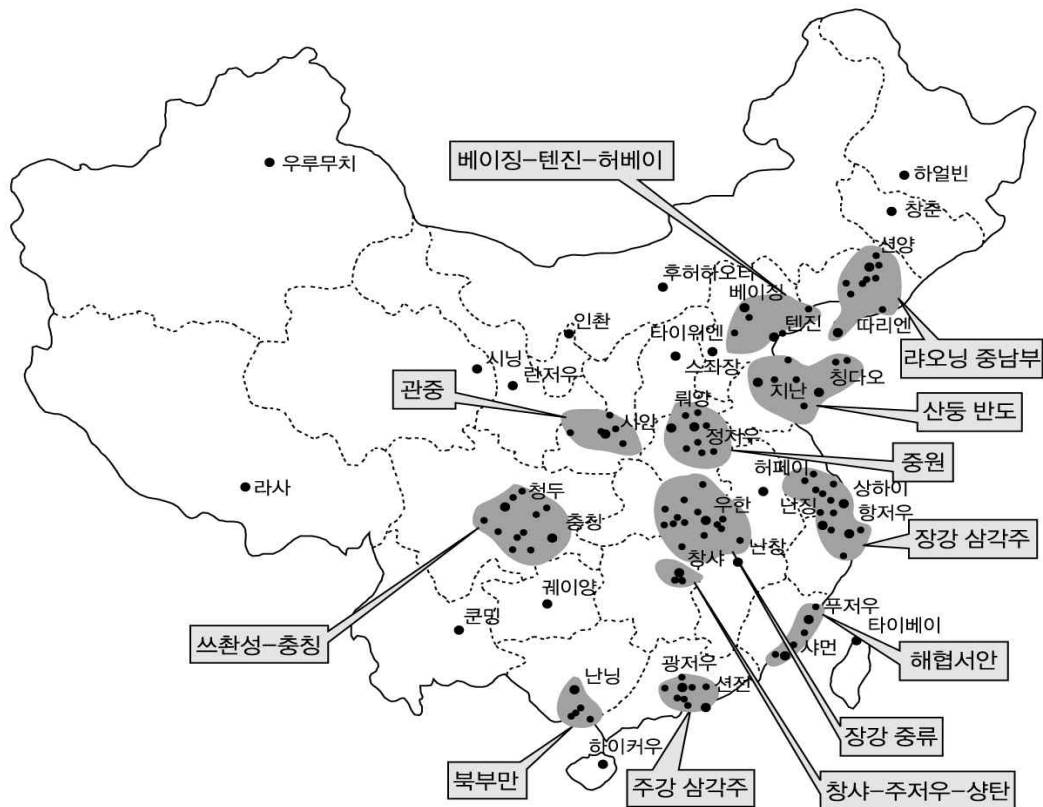
### ③도시군 형성 및 발전 동향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지역경제발전 구도와 형세가, 지역간 경쟁이 단일 도시간이 아닌 도시권을 기초로 하는 지역 전체간의 경쟁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구내 각 도시 및 ‘도시군(城市群)’<sup>4)</sup> 간에 분업, 합작 네트워크가 전체 지역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孙久文.彭薇, 2009 : 53)
- 중국정부는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 일체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적 차원의 도시공간계획과 도시군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에 도시군(城市群) 계획이 수립된 주요 지구는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3대 지구와 산둥반도, 푸지엔(福建) 남동부(海峽西岸), 랴오닝(辽宁) 중남부, 중원(中原), 장강중류(長江中游), 쓰촨(四川)-충칭(重庆), 관중(关中)지역, 후난성(湖南省) 창사(长沙)-주저우(株洲)-상탄(湘潭), 북부만(北部灣) 지구 등이다.
- 중국내의 70여개에 달하는 도시밀집구중에서 비교적 성숙도가 높고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

4) 소위 ‘도시군’이란, 특정한 지역범위 내에 인접한 수개의 도시 간에 상호연계와 내재연계(內在联系)가 부단히 강화되면서 형성, 발전하고, 거대한 집적경제효율을 창출하는 도시밀집지구 또는 도시집합체(城市集合体: Urban Agglomeration)를 가리킨다.

군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곳은, 상하이-난징(南京)-항저우(杭州)축을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도시군과 홍콩-선전(深圳)-광저우축을 중심으로 하는 주강삼각주 도시군, 그리고 베이징-톈진축을 중심으로 하는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도시군이다.

- 황하이 연해지구에는 장강삼각주 도시군과 산둥반도 도시군이 형성, 발전 중이고, 보하이 연해지구는 산둥반도 도시군을 황하이 연해지구와 공유하고, 수도권인 베이징-톈진-허베이성(京津冀) 도시군과 랴오닝 중남부 도시군을 포함한다. (<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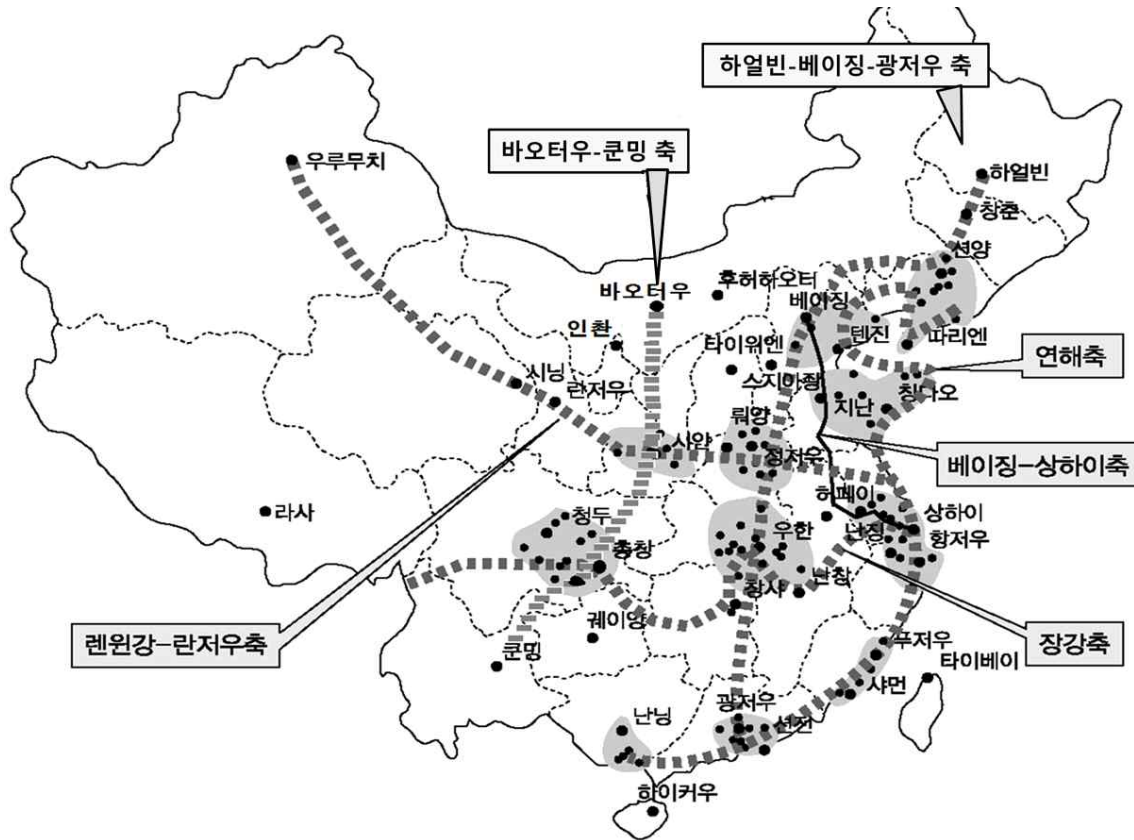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주요 도시군 분포현황

#### ④국토발전축 형성 및 발전동향

- 현재, 중국의 주요 국토발전축은 3종2횡(三縱二橫)의 5개축으로 남북 방향의 3개축과 동서방향의 2개축이 국토개발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다.(<그림 4> 참고)
  - 남북방향의 3개 축은, ①동부연해축과 ②베이징-광저우(廣州)간을 연결하는 징광(京廣) 철도축, ③네이멍구자치구 바오토크(包頭)와 윈난성 쿤밍(昆明) 간을 연결하는 바오크(包昆) 철도축이다.
  - 동서 방향의 2개 축은 ①연장강축(沿長江軸)과 ②중국횡단철도(TCR), 즉, 렌윈강(連雲港)에서 출발하여 쉬저우(徐州)-정저우(鄭州)-시안(西安)-란저우(蘭州)-우르무

치를 동서로 연결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대륙교(大陸橋: land bridge) 철도축이다.

- 동부연해축은 주로 연안항로와 근해지역 철도와 도로망에 의지하고 있으며, 동북, 화북(華北), 화동(華東), 화남(華南) 4개 경제지구의 연해지역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 연해축은 중국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제1단계 전략지역으로 1980년대에 추진된 연해발전전략과 관련정책의 지원 하에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축을 따라 경제특구, 개방도시, 개방구 위주의 외향형 경제지대가 형성·발전중이다.
  - 징광(京廣)철도축은 화북, 화중(華中), 화남경제구를 연계하고 있는데, 1997년에 연해축과 징광철도축 사이로 징저우(京九: 北京-九龍)철도가 개통되어 화북, 화동, 화남지구의 경제 연계가 강화되었다.
- 동서방향의 두 개의 횡축중 연장강축은 주로 장강 내륙수운축과 장강연안지역 철도와 도로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강 유역 도시들로 구성되어 동부, 중부, 서부 경제지대인 화동(華東), 화중(華中), 서남 경제구를 연결하고 있음
  - 연장강축은 2020년까지 중국 경제발전 전략상의 주력지구들을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 2급 축인 렌원강-정저우-시안-란저우-신장을 연결하는 롱하이(隴海) 철도축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철도축으로 최근에 중국정부 정부가 발표한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의 중국내 육상교통축이며, ‘중국횡단철도’(TCR: Trans China Railway) 또는 ‘대륙교’(大陸橋: land bridge railway)라고도 불린다.



<그림 4> 중국의 주요 발전축

## 다. 주요 지구별 현황과 발전정책

### 1)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지구

#### ①허베이성 ‘신형도시화’ 정책

- 2014년 중공 허베이성(河北省) 위원회와 허베이성 정부가 ‘허베이성 신형도시화 계획(河北省新型城镇化规划)’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베이성은 베이징-텐진-바오딩(京津保) 삼각핵심구를 조성하고, 바오딩(保定) 도시규모를 확대하여, 바오딩과 랑팡(廊坊)을 수도기능 활성화를 위한 집중 입지 대상지 및 베이징-텐진 산업전이의 주요 수용지(承載地)로 하고, 베이징-텐진을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도시군의 핵심지구로 조성한다.
  - 수도 주변의 일부 현(縣), 시(市)를 적정 규모, 특색선명, 시설 완비, 거주에 적합한 생태환경의 위성도시로 건설하고, 층차(層差)와 질서가 분명하고,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배치가 합리적인 지역 도시배치구조를 구축한다.
  - 문화는 도시의 영혼이다. 문화내함(內涵)과 중국원소를 돌출시킨다. 도시에 문화 내함(內涵)

숨)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과 맛, 매력이 있게 된다. 허베이는 문화대성(文化大省)이고, 축적된 역사문화 내력(底蘊)이 매우 깊다. 연(燕)나라와 조(趙)나라 등 부동한 역사시기에 독특하고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형성했다.

- 도시문화 내함을 증강시키고, 문화의 전승(傳承)과 보호를 중시해야 하고, 건축상에 중국원소를 체현(體現)해야 하고,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을 흡수하여 도시계획 수립과 건축심사에 참여토록 하고, 특색과 품위를 더욱 돌출시켜 하나의 발전노선을 만들어 내야 한다.
- 산업과 도시 융합을 추동시키고, 산업으로 도시를 진흥시키고, 취업으로 인구를 집중시키고, 진정한 산업-도시간 상호추동(产城互动)을 실천하고, 도시의 산업지원 능력을 증강시키고, 선진적 계획배치 이념을 수립한다.
- 도시산업구조를 특화하고, 낙후산업 도태를 엄격히 시행 완성하고, 동시에 전략 신흥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현대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킨다. 집약(集约) 및 순환(循环)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 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오수와 쓰레기 순환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공업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적극 추동하고, 도시 에너지 구조를 적극적으로 특화하고, 주민녹색소비를 적극 권장한다.
- 도농일체화 발전을 촉진하고, 특히 도농전역 도시계획을 견지하고, 경제사회발전, 도농건설, 토지이용, 생태방어선(生態紅線), ‘4계획 합일(四规合一)’을 실행하고, ‘하나의 계획 한장의 청사진’ 원칙을 견지한다.
- 녹색, 순환, 저탄소 생태문명도시 건설을 가속화한다. 신형도시화의 현저한 특징은 바로 생태문명이다. 녹색굴기(綠色崛起) 실현을 위한 중점은 도시 녹화에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필히 자연에 순응해야 하고 결코 자연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 도시생태공간을 개선해야 하고, 산수림전호(山水林田湖) 전반적 수복업무와 결합하고, 대(大)생태이념을 수립하고, 전체 지역의 산체(山体), 습지, 삼림, 강호수수계(河湖水系)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 간에 생태격리대와 녹도(綠道)와 녹지회랑(綠廊)을 구축하고, 도시의 자연 융합을 현실화 한다.
- 삼림도시(森林城镇)를 적극 건설하고, 각 구(區)와 시(市) 설치시 각 현(縣)은 모두 식수조림 목표를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고, 도시(城镇) 수원지, 자연보호구, 풍경구, 해안선, 습지 등 중요 생태기능구의 보호업무를 양호하게 장악해야 한다.

## ②베이징, 텐진, 허베이 각 지구별 발전 목표와 방향

-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협동발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베이 도시화를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협동발전이라는 큰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발전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산업배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성역(省域) 중심도시를 크고 강하게 키우고, 구역(区域) 중심도시를 신속히 육성하

고, 현역(县城)의 용량 확대와 질 제고(扩容提质)를 적극 추진하고, 소성진(小城镇) 발전수준을 제고한다.

- ‘인간본위(以人为本)’도시화 원칙을 강조했다. 호적제도개혁을 가속화하고, 도농간 사회보장제도의 유효한 연결을 추진하고, 더욱 많은 농업전이인구를 진정한 도시주민(城镇居民)으로 만들고, 농업전이인구가 주로 중소도시에 집중거주토록 촉진하고, 중소도시의 인구수용능력을 증강한다. 미전이(未转移) 농업인구의 생산생활조건을 적극 개선하고, 양호한 상호작용의 도농관계를 건립한다.
- 도시화의 질 제고를 더욱 중시하고, 연계시설의 거주 적합도를 높이고, 도시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전승 및 보호를 양호하게 추진하고, 도시관리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고, 조화(和谐), 포용, 활력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모든 사람들이 도시문명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중의 취업에 유리한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서비스업의 도시취업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 농민을 향한 생산성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산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 산업구조 조정과 생태보호건설의 유기적 결합을 견지하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유리한 산업발전모델을 적극 형성한다. 우세(优势) 형성에 유리한 특색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지방별 특색 우세산업의 중소도시와 중점도시(城镇)의 지탱작용(支撑作用)을 강화한다.
- 베이징은 정보산업, 생물의약산업 등 7대 전략성 신흥산업을 중점 발전시킨다.
- 베이징은 비교적 양호한 신에너지산업 발전기초를 보유하고, 이중 풍력발전설비제조와 태양에너지광판산업은 중국내 선두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물질에너지, 핵에너지와 지열에너지 산업도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 중관촌 과기원구(北京中关村科技园区)를 국가자주창신시범구(国家自主创新示范区)로 비준했다. 기술, 자본, 인재 등 창신요소의 집적과 촉진을 위한 양호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 베이징 신에너지 자동차 과학기술산업단지가 건립되었고, 2011년 각 종류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판매량이 약 3만대에 달했다.
- 베이징의 신형반도체, 나노(나미)소재와 초전도재료 등 영역의 연구는 이미 국제선진수준에 달했고, 2010년 신재료 판매액이 500억위안을 돌파하여, 베이징 고신기술 지주산업이 되었다.
- 베이징의 전자정보산업은 이동통신, 디지털TV,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고세대 평판모니터, 집성전자회로, 컴퓨터,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응용 등 6대 영역이 중점발전중이다.



- 텐진은 고도의 제조업기지로 발전시킨다.
  - 텐진 항공항천산업은 무의 상태에서 급속히 발전중이다. A320 대형 항공기 매월 3대씩 조립생산하고 있고, 대동력 로켓과 헬리콥터, 무인항공기를 연구개발중이다.
- 허베이성은 신에너지, 신재료, 전자정보, 생물의학 등 영역에서 우세를 보유토록 한다.
- 허베이성 ‘신형도시화계획’에서는, 인구의 본지 도시화(就地城镇化) 촉진과 본지 흡수에 진력하고, 베이징과 텐진의 인구 분산 및 인구압력 해소를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 스자좡(石家庄)을 중심으로 베이징-텐진-허베이 도시군 남부 부중심(副中心) 도시를 건설하고, 탕산(唐山)을 중심으로 동북부 부중심 도시를 건설하고, 베이징-텐진과 기능분업 및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허베이 중남부, 허베이 동부 양날개를 대동하고 발전시킨다.
  - 장자커우(张家口)와 청더(承德)의 생태 우세와 칭황다오(秦皇島)의 해변자원(滨海资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수도를 위해 복무하는 특색기능도시로 조성한다.
- 한단(邯鄲)시의 산시-허베이-산둥-허난(晋冀鲁豫) 접경지구의 중심도시로서의 거점지위를 강화하고, 창저우(滄州)시의 연해항구도시 역할을 제고하고, 싱타이(邢台)시와 형쉐이(衡水)시의 규모와 실력을 증강시킨다.
- 쑤허(三河)시, 상허(香河)현, 따창회족자치현(大厂回族自治县)으로부터 베이징과 텐진으로 유입되는 오염을 저감시키고, 랑팡(廊坊)시의 환경수용능력을 증강시키고,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협동발전 생태함양구로 조성한다.
  - 랑팡(廊坊)에 인접한 베이징과 텐진의 10개 현(县,市,区)중 6개가 베이징과 연접하고 있고, 이중 쑤허(三河)시, 상허(香河)현, 따창(大厂)회족자치현은 베이징-텐진에 둘러싸여 있다. 랑팡(廊坊)의 생태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베이징-텐진 양대 직할시 생태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공리관(公里寬)의 ‘랑팡남부 생태습지회랑(廊南生态湿地走廊)’과 베이징-텐진에 둘러싸인 북부 3개 현(三河市, 香河县, 大厂回族自治县) 역내에는 피혁, 전기도금, 재생종이 제조공장 등 오염기업은 모두 도태시키고, 모든 시멘트 광물분쇄 채굴기업을 구분하여 퇴출, 폐쇄시킨다.

## 2) 산동성

### ①산동성 개황

- 산동성은 일본과 한국에 인접한 지역우세를 발휘하여, 제조업과 농산물 가공업 발전 추세가 매우 강하고, 주변지역 발전을 대동하는 도시의 대외 파급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도시군의 범위도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 지난(濟南)-칭다오(靑島)축을 중심으로, 옌타이(烟台), 웨이팡(濰坊), 즈보(淄博), 동잉(東營),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등의 도시를 포함한다.
- 이 지구의 양대 중심도시는 지난(濟南)과 칭다오인데, 1990년 대 이래 칭다오의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성도(省都)인 지난을 경제적으로 추월했다.
- 서쪽으로 황하(黃河) 경제협력지대와 연접하고, 동쪽으로는 한국, 일본, 북한, 그리고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르자오(日照) 등의 항구도시들이 있다.
- 특히, 지리위치상 한국과 매우 가깝고, 산둥성 외국기업 직접투자유치액중 한국투자 규모가 1위, 홍콩이 2위, 일본이 4위이다. 특히, 칭다오(靑島),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3시와 한, 일의 기업과 산업간에 보완성이 강하여, 한, 일을 겨냥한 제조업 기지 건립 측면의 우세가 강하여, 이미 일본의 마쓰시다(松下), 미쯔비시(三菱), 한국의 삼성, 현대 등 다국적기업을 유치했다.
- 대외개방 이후,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웨이팡 등 도시가 모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중에서도 한국 기업의 투자와 한국과의 무역을 바탕으로 한 웨이하이의 발전이 가장 빨랐다.

## ②산둥반도 도시군 발전계획

- 산둥반도 도시 및 도시군 발전목표는, ①산둥성 및 황하중하류지구 대외개방의 관문, ②지역종합경쟁력이 강대한 국제화 도시연면구와 도시공간연계밀집구, ③중국 전국 나아가 환황해경제권의 중요한 선진 제조업생산 서비스 기지중의 하나, ④도농통합발전의 시범구, ⑤지속가능발전하는 생태경제구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 즉, ①동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고 산둥성과 중서부로 파급시키는 강력한 용머리, ②공간 특화, 분업, 질서있는 도시연면구 육성, ③인간과 자연의 조화, 거주에 적합한 도시군, ④도농 일체화, 문명풍족, 사회 조화(和諧) 현대화 지역 실현이다.
- 1단계에서는 발전정합단계(發展整合階段)로, 기초시설과 각 항 제도 건설을 통하여 대,중 도시의 경제실력을 증강하고, 중소도시의 규모 등급을 상승시키고, 구(區)가 설치된 8개 도시의 일체화 정합(整合)을 촉진시킨다.
- 또한 소성진(小城镇)을 적극 발전시켜 도시체계가 완비되고, 도시화 수준이 높고, 도시분포가 밀집된 다수의 도시지대를 형성한다.
- 2020년까지 도시체계를 점진적으로 특화 완비하고, 도시군 네트워크 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도시연면구(都市连绵区) 실체지역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 2단계에서는 안정발전단계로서, 2020년 이후 30년간 도시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안정시키고, 도시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산동반도 도시연면구를 형성하고, 환황해 지구에서의 핵심지구 지위를 더욱 강화한다.
- － 산동반도, 한국 서해안지구, 일본 큐슈(九州)지구로 조성되는 삼각 국제도시회랑을 구축하여, 지역경제협작의 선진제조업 생산서비스 중심으로 육성한다.
- 최근에 산동성정부는 외자유치시, 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산업은 거절하고, 고급신기술산업과 장비제조업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③산동성 신형도시화 정책추진계획 및 전략

#### □ 산동성 ‘신형도시화’의 목표 및 임무

- 지난(濟南), 칭다오(靑島), 린이(臨沂) 3대 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권과 도시군(城市群)이 인도하고, 대,중,소 도시와 농촌중심 소성진(小城镇)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현대 집진(集鎮)과 농촌사구(农村社区)를 기초로 하는 신형 도시구조와 배치체계를 완비한다.
- － 동시에 고효율의 도시교통망과 도시고속정보망 등 현대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가속화한다.
- － 현단계 산동성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돌출되는 현실문제는 지난(濟南), 칭다오, 린이(臨沂) 등 대도시의 인구밀도와 경제총량 비중이 낮아서 도시의 극화(極化) 및 과급기능 발휘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서비스업의 비약적 발전 추세를 가속화하여 서비스업 증가치 비중을 연평균 2% 이상 상승시키고 2015년에는 46% 이상, 2020년 60% 이상에 도달한다.
- － 성(省) 전체 범위에 걸쳐서 전략성 신흥산업이 인도하고, 현대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선진제조업을 지주(支柱)로 하는 신형 도시산업지원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한다.
-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를 가로막는 체제 및 기제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지난(濟南), 칭다오(靑島), 린이(臨沂)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권과 산동반도 도시군, 산동남부(魯南) 도시군 3대 도시권과 도시군 발전을 가속화한다.
- － 호적제도와 연관된 체계적 개혁을 통해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를 가로막고 있는 체제 및 기제(機制)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장기제의 조절작용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고, 요소와 자원이 도농간에 합리적으로 유동하도록 촉진한다.
- 기초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현대화 집진(集鎮)과 농촌사구(农村社区) 발전을 가속화한다.
- － 당면한 주요 과제는 농촌의 교통, 통신, 건축, 주거, 수리, 에너지, 환경보호, 위생방역 등 현대 공공기초시설 투자를 통해서 집진과 농촌사구의 발전을 유효하게 촉진시키는 것이다.

## □ 산동성 부문별 신형 도시화 추진 전략

- 산동성 ‘신형도시화’ 추진 방향과 전략에는 도시화 개념이 포함하는 주요 부문별 전략으로, 현대농업 발전, 신형 공업화, 현대 서비스업의 비약 발전, 황하삼각주 고효익 생태경제구 건설, 산동반도 현대 해양산업발전 및 남색경제구 건설, 지난(濟南) 도시군 발전, 산동성 남부 경제지대 발전, 현역(县域)경제발전 모델 창신(創新), 도농 남색경제구 일체화 계획건설 가속화, 대외경제발전수준 제고 및 재정금융체제 창신 등을 포함한다.
- 도농 일체화 건설은 도시체계 완비와 도시화 질 승급을 촉진한다. 단, 도농 일체화 건설의 주요 목표이자 전제는 도농분할 호적관리, 토지사용권 귀속 및 재산권 보장 문제, 공공서비스 혜택의 불평등 문제 등 사회모순 문제의 완화이다.
  - － 도시화 과정에서 도농분할의 호적관리, 토지와 공공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대량의 ‘반도시화(半城镇化)’ 인구가 존재하고, 농촌산업에서 도시산업으로 전이된 인구가 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일반 도시주민이 향유하는 생활 및 소비수준을 향유하지 못하고, 도시화와 내수확대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
  - － 특히 중소도시의 규모가 작고,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높지 않고, 산업구조가 불완전하고 경제사회활력과 흡수능력이 부족하고, 기초시설 연계 부족하고, 환경의 질, 사회보장 수준, 조직대동능력 등이 부족하여, 농촌전이인구를 흡수하기가 어렵다.
- 도농 일체화의 기본 목표는 농민 자신의 발전과 공평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주민이 도시주민과 동등한 발전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 － 도농통합의 요구에 의거해서 도시발전과 신농촌건설을 결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농촌으로 연장한다.
  - － 농민의 도시 진입(进城), 호적취득(入户), 거주(安居) 등을 위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농민을 도시로 진입시키고, 평등하고 조화로운 도농관계를 구축한다.
  - － 농촌산업발전을 촉진하고, 농업산업체인(产业链)을 연장하고, 농산품의 과학기술 함량을 제고하여 농산품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므로써 농민의 수입을 유효하게 증가시킨다.
- 도농 일체화 건설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기본 공평을 보호하고, 당면한 각종 경제사회 모순을 완화하여, 도농이원구조하에 장기간 조성된 농촌희생, 동농간 격차 확대 국면을 점진적으로 개변하고, 조화로운 도농관계를 건설하고, 신형도시화를 위한 조화로운 사회환경을 제공한다.
  - － 농촌기초시설 투자강도를 강화하여, 물, 전기, 도로, 통신, 의료위생 및 교육사업 등을 부단히 개선시키고, 농촌주민의 생활조건을 개선한다. 도시의 과학기술, 교육, 의료 등의 농민을 향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여 농민생활의 질을 제고시킨다.
  - － 정보화 수준과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촌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도농간, 지역간 차이에 갈수록 민감해 지고 있다.

## □ 지역통합 강화, 공간배치 특화, 산동 특색의 도시화체계 구축

- 도농통합, 합리적 배치, 토지절약, 기능완비, 큰 것이 작은 것 대동(以大帶小) 원칙에 의거하고, 도시군 발전계획과 경제구 계획을 결합하고, 산동반도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와 황하삼각주 고효익 생태경제구 조성을 중점에 놓고, 산동반도 도시군, 지난 성회도시군(省会城市群) 경제권과 산동남부 도시지대(鲁南城镇带) 구축을 주체로 하고, 칭다오(靑島)와 지난(濟南)을 쌍핵으로 하고, 지역중심도시와 현급시(县级市)와 현정부 소재지(县城)를 골간으로 하고, 각 유형별 소성진을 기초로 하고, 중심촌(农村社区)을 지점(支点)으로 하여, 도농협조발전의 도시화체계를 진일보 완비한다.
- ‘군(群)-권(圈)-구(区)-대(帶)’의 도시공간틀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비교우세 발휘, 발전배치 특화, 도시군과 산업집군 상호연동 발전틀을 형성하고, 전 성(省) 지역 경제의 가속발전을 추동한다.
- 지역통합, 도농통합, 도시군, 대중 소성진과 향촌협조발전의 도시화 노선을 강화한다. 도시군의 우선 발전을 추진하여, 산동반도 도시군, 황하삼각주 고효익 생태경제구, 지난(濟南) 성회도시군(省会城市群) 경제권, 그리고 산동남부 경제지대를 산동성 특색 신형도시화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킨다.
- 조건을 갖춘 중등도시의 대도시로 발전을 장려한다. 또한 중소도시의 발전을 가속화 하고, 소도시를 중등도시로 발전시키고, 현역(县城) 중심도시 발전을 가속화 한다.

## □ 신형 공업화, 농업 현대화와 연동 발전

- 신형공업화와 신형도시화, 그리고 농업 현대화는 3위1체로서 3자는 불가분하고 상호보완 연계발전하는 구성체이다. 도시건설, 향촌건설, 항목건설을 결합해야 하고, 공업은 공업원구(工业园区)에 집중시키고, 공업원구는 도시에 집중시키고, 농업은 적정규모로 집중시키고, 인구는 도시에 집중시키면서 지역경제의 규모 효과를 최대한 실현한다.
- 고신기술산업과 전통산업, 자금기술밀집형 산업과 노동밀집형 산업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신형공업화를 추진한다.
  - 각 유형의 경제개발구, 산업원구, 공업집중발전구 등을 도시총체계획(城镇总体规划)에 포함시키고, 도농통합발전을 견지하고, ‘신형 공업화’와 농업현대화의 지원 및 서비스 기능을 발휘토록 한다.
- 신에너지, 신재료, 신의약, 신정보 등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을 가속화한다.
  - 신에너지영역에는,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광판발전, 해양에너지, 원자력 발전장비, LED 조명, 신에너지 자동차 등.
  - 신재료 영역에는, 고기술자기, 특종섬유, 고분자재료 등 방면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가 국내 우세 지위 점유.

- 과학기술 진보에 의지하여 농업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개혁강도를 강화하여 토지의 합리적 유전(流转)을 촉진시키고, 농업 산업화 수준을 제고하고, 농업 산업화와 신형 공업화 협조발전을 촉진한다.

#### ④산동성의 해양산업발전정책

- 산동성은 중국 국무원이 지정한 4개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시범구’ 중의 하나이고,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규획’을 수립 공포했다.
- － 산동성외에 저장성(浙江省), 광둥성, 푸젠성(福建省)에도 ‘해양경제 육성시범구’가 지정되었고, 저장성은 ‘저장성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규획’, 광둥성은 ‘광둥성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규획’, 푸젠성은 ‘해협 남색경제 실험구 발전규획’ 발표

<표 2> 중국 4대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지역 발전규획 비교

구분		산동성	저장성	광둥성	푸젠성
계획명칭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규획	저장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규획	광둥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규획	해협 남색경제 실험구 발전규획
발표시기		2011.1	2011.3	2011.8	2012.11
개발기간		2011~2020년	2011~2020년	2011~2020년	2011~2020년
면적	해역	15.9만km <sup>2</sup>	26만km <sup>2</sup>	41.9만km <sup>2</sup>	13.6만km <sup>2</sup>
	육지	6.4만km <sup>2</sup>	3.5만km <sup>2</sup>	8.4만km <sup>2</sup>	5.47km <sup>2</sup>
대상지역		靑島,烟台,東營,濰坊,威海,日照,濱州(7개시)	杭州,宁波,溫州,嘉興,紹興,舟山,台州(7개시)	广州,深圳을 포함한 14개시	福州, 厦門 등 연해 6개시
해양산업 총액(2011)		7,892억 원	4,500억 원	9,800억 원	4,420억 원
전략위상		자원개발, 생태환경, 국제협력	산업업그레이드, 육해 종합발전	해양경제 종합발전, 지역경제파급효과	양안 해양협력, 해양산업 클러스터

자료 : 국무원 4대 지역 해양경제발전계획, 중국해양통계연감, 2011

#### □ 산동성 해양자원 현황과 과제

- 해안선·해역·자원매장량 등 해양자원이 풍부하다.
- － 산동성 해안선 총길이 3,100km로 중국 전체(1.8만km)의 1/6, 해역면적 15.9만km<sup>2</sup> 중국 해양 총면적(300만km<sup>2</sup>)의 5.3%이다.
- － 해양원유매장량 23.8억톤, 천연가스 110억m<sup>3</sup>, 해저석탄 12.9억톤, 래주만·교주만 지역

1,500km<sup>2</sup>지역에 분포된 풍부한 염수(鹽水)자원, 조류에너지 잠재량(4천만kW), 해상풍력자원(잠재량 400만kW)

- 우수한 해양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 중국해양대학,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국가해양국 제1연구소, 중국 수산과학연구원 황해수산연구소 등 유명한 연구소 보유, 2010년 기준 해양연구소 22개, 종사인원 3,466인 전국 인원의 10.2%
- 항만·조선·화공·철강 등 산업기초인프라가 양호하다.
- 중앙정부와 산둥성 정부의 육성정책(남색경제구)에 따른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 가능하다.
- 단, 대외적으로 격렬한 경쟁극복, 기술수준 제고와 재원조달루트 구축, 해양산업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리더기업·대표제품 육성, 내부문제 해결 등의 과제가 있다.
  - － 중국내에서도 광둥성, 저장성, 푸젠성 등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지역과 경쟁해야 하고, 산둥성 내부에서도 각 지급시별 과도한 개발로 인한 해양자원훼손과 중복투자 조정 과제에 직면해 있다.
  - － 선택과 집중, 협업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 산둥반도 해양산업 발전계획

- 산둥성은 2013년 1월 중국 최초로 ‘해양산업발전지도목록’을 제정하고, 해양바이오, 해양설비제조, 해양화공, 해양어업 등 10개 산업분야에 대해 장려·제한·퇴출 규정을 제정했다.
  - － 2011년 중국 국무원이 최초로 해양경제를 주제로 한 지역발전계획인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규획’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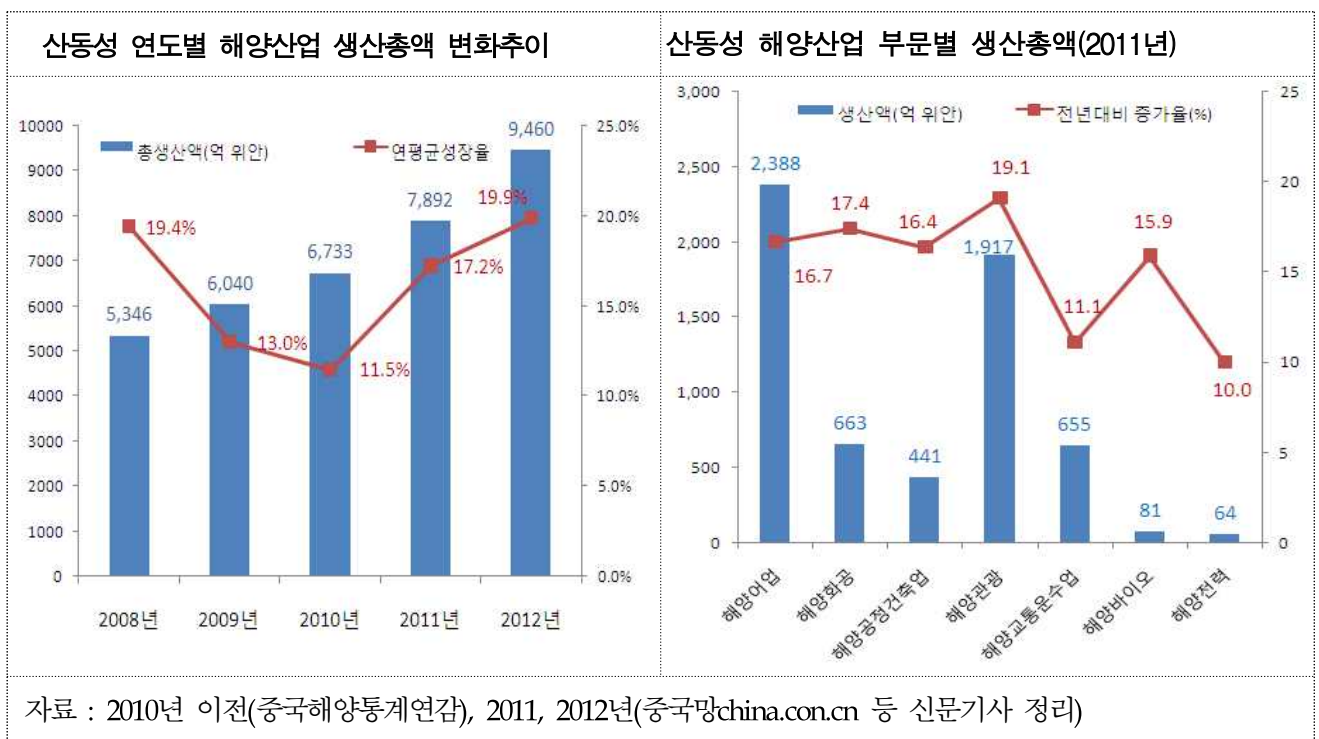
**<표 3> 산둥성 해양산업 지역별 배치 계획**

구분	해양산업 배치계획
해양양식업	30억㎡이상 양식기지(룽청, 창다오長島, 핑라이, 라이저우, 쟈오난)
원양어업	룽청, 소우광壽光, 핑라이, 황다오
해양수산가공	수산물정밀가공기지(옌타이, 웨이하이, 칭다오, 르자오, 웨이팡) 냉동물류기지(룽청, 청양, 즈푸芝罘)
해양바이오	제조기지(옌타이, 웨이하이, 르자오, 웨이팡), 연구개발기지(칭다오)
해양장비제조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기지(칭다오, 옌타이)
해양에너지	조류(藻類)바이오에너지(칭다오), 석탄(룽코우), 조력발전(라이저우만)
해양공정건축업	해양공정건축업기지(칭다오, 르자오, 옌타이)
해양화공	해양신소재산업기지(칭다오, 옌타이, 웨이팡, 웨이하이)
해양운송·물류	4대 임항물류기지(칭다오, 르자오, 옌타이, 웨이하이) 동북아 국제물류중심(칭다오)
해양관광	국제적으로 유명한 해변관광지 조성(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자료 : 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展規劃, 2011.1

□ 해양산업 발전현황

- 2011년 산둥성 해양경제 총액은 7,892억 위안을 산둥성 GDP의 17.4%, 전년대비 11% 증가했고, 중국 전체의 17.3%를 점유했다.
- 산둥성 해양산업 총액은 2008년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16.2% 성장했다.
- 부문별로 해양어업과 해양관광이 전체의 54.5% 차지하여 여전히 주력산업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어업 2,388억 위안(30.2%), 해양관광 1,917억 위안(24.3%), 해양화공 663위안(8.4%) 순이며, 해양원유 생산량은 297만톤이다.
- 2012년 산둥성 주요 지역별 해양산업 생산 총액은 칭다오 2,150억 위안(GDP의 13.8%), 옌타이는 1,727억 위안(32.7%), 동잉 1,050억 위안(18.3%), 르자오 680억 위안(50.2%) 차지했다.
- 산둥성 해양산업 종사자('08년 기준)는 489만명에 달하고(연간 취업증가 공헌율 20%)<sup>5)</sup>, 2011년 칭다오시의 경우, 해양산업 서비스관련 신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했다.



<그림 5> 산둥성 해양산업 생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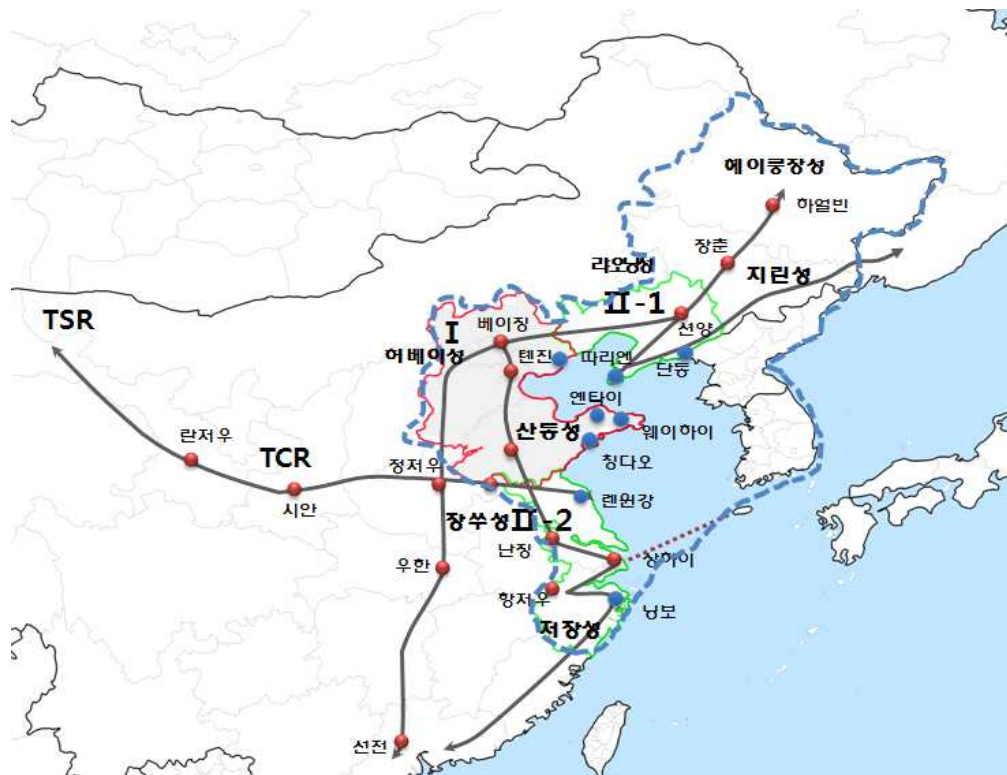
5) 중국해양대학학보, 2012년 1기



### Ⅲ. 충남의 대응전략

#### 가. '환황해권'범위 설정

- 중국은 국토가 광활하고 각 지역간 자연환경과 정주체계, 경제발전 수준 등 차이가 큰 나라이므로, 대(對)중국 전략은 중국내 파트너 지역 선택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즉,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타깃지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파트너 지역에 대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국가차원이건 지자체 차원이건 대(對)중국 전략과 연결한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기초와 전제는 '중국 올바르게 알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중국내 전략적 파트너 지역 선택과 집중적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충청남도의 대(對)중국 전략 타깃지역으로 중국의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 연해지구'로 설정하되, 북으로부터 보하이 연해지구인 랴오닝성(遼寧省)에 지린성과 헤이룽장성까지 포함한 동북3성 전체와 베이징-톈진-허베이성(京津冀), 그리고 북부는 보하이, 남부는 황하이에 연한 산둥반도, 그리고 황하이 연해지구의 지리적 범위는 산둥반도 남쪽으로 장쑤성(江蘇省), 상하이시까지이나, 상하이-장쑤성과 함께 장강삼각주에 속하는 저장성(浙江省)까지 포함시킨다.(〈그림 6〉 참고)
- 대(對)중국 전략 타깃지역으로 설정한 중국의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 연해지구'를 대상으로 충남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우선 순위를 구분한다.(〈표 4〉 참고)
- I 권역은 충남도와 20년 이상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허베이성과 베이징-톈진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구인 징진지(京津冀)지구와 충남도내 시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기초로 한 교류 파트너 시,현(縣)이 가장 많은 산둥성으로 구성된다. 권역내 총인구 약 2억 653만명, 총면적 약 37.5만km<sup>2</sup>이다.
- II-1권역은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을 포함하는 동북3성지구이고, 권역내 총인구는 약 1억 976만명, 총면적은 약 80.4만km<sup>2</sup>이다.
- II-2권역은 장쑤성(江蘇省), 상하이시, 저장성(浙江省)을 포함하는 장강삼각주지구이고, 권역내 총인구 약 1억 5852만명, 총면적 21.3만km<sup>2</sup>이다.



<그림 6> 환황해권 범위 및 위계 설정

<표 4> ‘환황해권’중국 성,시별 현황

구분	1인당 GRP(달러)		1인당GRP 전국순위*	면적 (만km <sup>2</sup> )	인구규모 (만명)	비고
	전국	5,247	-	968.4	136072	
I 권역	河北省	4,847	16	19.0	7333	인구: 2억 653만명, 면적: 37.5만km <sup>2</sup>
	北京市	11,671	2	1.64	2115	
	天津市	12,471	1	1.19	1472	
	山東省	7,052	10	15.7	9733	
II-1권역 (동북3성)	遼寧省	7,723	7	14.8	4390	인구: 1억 976만명, 면적: 80.4만km <sup>2</sup>
	吉林省	5,909	11	18.7	2751	
	黑龍江省	4,696	17	46.9	3835	
II-2권역 (장삼각지구)	江蘇省	9,341	4	10.3	7939	인구: 1억 5852만명, 면적: 21.3만km <sup>2</sup>
	上海市	11,280	3	0.62	2415	
	浙江省	8,572	5	10.4	5498	

\* 주1: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내의 1인당 GRP 순위임.

\* 주2: 2013년말 인민폐 대 달러 환율 1달러(USD) = 7.9868元 적용(2014中國統計年鑑: 894쪽)

자료: 2014中國統計年鑑, 30, 50, 63쪽

## 나. 환경변화 전망 및 주요 이슈

- 중국은 ‘소강(小康)’과 ‘현대화’를 넘어서서 패권(hegemony) 국가로 복귀하고자 인접 국가에 대한 시혜(施惠, benevolent)의 폭을 넓히면서 소프트파워를 겸비하는 데 국가전략의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황·보하이 연해지구와의 교역, 교류가 경제, 문화, 사회를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서해안지역 및 충남지역 각 분야의 잠재 성장동력과 연결, 결합될 것이며, 최근에 타결된 한중 FTA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또한 소위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경제정책과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추진에 따라,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을 포함한 정책기조가 이제까지의 ‘양적 성장’추구에서 혁신과 창신(創新)을 통한 ‘질적 발전’과 해외진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 성장을 중심의 양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고도화, 오염절감형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육성, 문화·여가산업의 육성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복지제도와 호구제도 개혁을 통한 개인 간 경제격차의 완화 등 질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산업 및 무역정책도 이제까지 주력했던 가공무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수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신상태’경제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중국의 부품 국산화율을 상승시키고, 이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가공무역 의존을 크게 감소시키고, 중국시장 및 세계수출시장에서 한중간 경쟁 심화 등 충남의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 충남의 대(對)중국 수출의존도는 44.6%로 전국 지자체중 최고 수준이다.(전국 지자체 평균 25.4%)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000년 9.1%에서 44.6%로 상승한 반면 대(對)미국 수출비중은 32.8%에서 7.4%로 하락.
- 이와 동시에, 후(后)도시화에 따른 귀농·귀촌, 건강·환경·생활,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확대 추세와 지역이 보유한 자원우세가 결합되면서, 농업과 농촌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 친환경 먹거리 수요에 부응한 농생명 융복합 분야와, 해안지역, 섬, 해양수산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문화관광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부응하여 도농의 공간적 연계와 통합이 진행되면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내발적, 자생적 발전이 진행되고 콘텐츠 창조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축적할 것이다.
- 지방 주도의 대(對)중국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전략적 운영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 중국, 특히 황·보하이 연해지구 성, 직할시와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 친환경 먹거리 산업과 한중 농산물 및 식품 교역과 연계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 노령화시대 Well Aging 추구,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협동조합형 기업 증가 추세와 연결될 것이다.

## 다. 대응전략 및 단계별 과제 도출

### 1) 기본방향

- 충남이 보유한 발전잠재력을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와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면서,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전략과 충남지역의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 중국 파트너 지역 유관기구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 및 관리하면서, 지자체 관할 지역내 기업체 대(對)중국 통상 및 내수시장 개척과 연결을 지원한다.
- 지역 현안과제와 대(對)중국 교류 파트너 지방의 관심사업과 연계 항목을 탐색 및 발굴한다.
- 전략적 타깃 지역을 선정하고, 1단계는 허베이성과 산둥성, 2단계는 랴오닝성을 포함한 동북3성과 장쑤성(江蘇省)을 포함한 장강삼각주지구로 한다.
- 지방차원에서 충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중 FTA와 중국의 ‘신상태(新常態: New Normal)’ 경제,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 구상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 선택과 집중 원칙을 견지하고, 중앙의 예산 지원 획득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및 선정 기준과 연계 추진한다.
- 허베이성의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산둥성의 ‘산둥반도 남색(藍色)경제구’, 저장성(浙江省)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 해양경제발전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 산둥성과 저장성의 해양(藍色)경제구 발전전략과 연계한 해양경제 발전전략 수립 등
- 농업 현대화, 도농통합발전, 신형도시화 등 삼농혁신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교류협력 주제별로 실천방안을 모색/설계하고 사회적 경제모델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 대(對)중국 교역 및 교류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잠재력을 적극 활용한다.
- 섬, 갯벌 등 해양자원 및 친환경생태자원 등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한다.
- 중국인 입국관광객 수용기반 조성 및 유치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 대(對)중국 교류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 중국인 유학생 활용전략을 연결한다.
- 농업/농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부문의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한-중간 연결 및 유통통로를 구축을 지원한다.
- 삼농문제 및 신형 도시화 등 중국정부가 중시하는 과제와 연결 교류 사업 및 상품

발굴방안을 모색한다.

- 귀촌, 귀농, 친환경 먹거리, 마을 만들기, 로컬푸드 등 후도시화(post urbanization) 추세에 대응한 내발적(內發的), 상향식 경험과 성공사례 등을 중국의 신형 도시화 정책과 연결 합작,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2) 주요 분야별 대(對)중국 교류 선도사업 선정

### □ 관광분야

- 중국인 입국관광객 증가 추세에 전략적 대응대책 수립
  - 2014년 중국인 입국 관광객 총수는 약 613만명으로 전년대비 42.6% 증가했고,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중 43.1%를 점유했다.
- 대(對)중국 교류 파트너 중국 지방정부와 충남지역 기반 중국전담여행사를 합작, 건립, 운영한다.
- 서울, 제주도, 청주공항과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관광문화 융성전략, 한중교역 및 경험 사업과 연계시킨다.
- 중국인 입국관광객을 단체 패키지 관광과 개인, 가족, 팀별 개별 관광객으로 유형화하고, 지역 특성을 돌출시키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구분하여 수립, 추진한다.
- 지역내 중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하고, 충남지역 관광지 홍보와 장소마케팅과 전략적으로 연결한다.

### □ 해양산업분야

- 산동성 남색경제구와 해양산업 협력 분야 모색
  - 중국 에너지수요 증가로 해양플랜트 산업 집중 투자에 따라(12·5기간 환보하이·장강·주강지역에 3천억 위안 투자), 해양플랜트 관련 부품소재 분야에 진출기회를 탐색, 발굴한다.
  - 산동성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연계하여, 해양생물육종, 조선(LNG선, 만TEU급 컨테이너선), 지능형 조선기자재, 해상풍력설비, 고속페리, 크루즈 분야<sup>6)</sup>에서 우대조건을 제고한다.
- 2011년 중국 해양산업 신규일자리 70만개 창출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산동성 해양산업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와 시군, 학계와 산동성 정부간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해양관련 인재 공동육성을 추진한다.
- 보하이만(渤海灣) 해양환경 개선, 어업자원 보호, 해양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 등 해양환경·자원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6) 2013년 1월 산동성 정부가 발표한 해양산업발전 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해당하는 업종임.

### □ 3농분야

- ‘3농’을 대(對)중국 교류협력 및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연결고리로 활용한다.
  - 농민, 농촌, 농업(三農) 대책은 중공과 중국정부의 지도하에 황보하이 연해지구 성, 직할시 급 지방정부에서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과제이다.
  -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한 2004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11년 연속 매년 년초에 하달하는 ‘중공중앙1호 문건’의 핵심주제가 3농문제와 대책 관련 내용이었으며, 충남에서도 농업, 농촌 관련 정책과제가 갈수록 중시되고 있으며, 주민 주도의 내발적, 상향식 성공사례 경험의 축적되고 있다.
  - 중국정부의 3농관련 주요 관심사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농민전업협작사 활성화’, ‘농업현대화와 선도기업 활성화’, ‘도농일체화 건설’, ‘농민의료협작 및 복지 확대’, ‘식품안전’ 등 포괄적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 따라서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가 중시하는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정책 및 ‘신형 도시화’, 농업현대화, 해양경제발전, 도농통합발전 등 주요 동향과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지방 차원의 한중 교류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력 재인식과 후도시화 추세 속에 지자체 및 주민 주도로 농촌에서 추진, 진행되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 지역순환식품유통구조 구축 등 3농혁신 관련 경험과 성공사례를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및 연결고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 국내의 삼농정책 관련 성공사례 및 경험을 대(對)중국 교류 대상 항목으로 선정, 추진하면서 대(對)중국 정책연수관광상품 등 관련 사업항목을 발굴한다.
  - 창조적 마을 만들기, 희망/행복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 귀농/귀촌 교육, 농어업인 역량 강화, 지역리더 양성 교육 등
  - 여가농업,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관광두레 조성,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 농촌체험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등
  - 친환경 고품질 농산품 사업, 로컬푸드-지역순환식품-도농상생복합단지-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 기 추진중인 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교류자치단체 공무원 초청사업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 충남도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교류협력 추진중인 허베이성과 산둥성, 랴오닝성, 장쑤성, 그리고 관할 시·군과 교류협력이 진행 중인 중국 황보하이 지구내의 성, 시·현 지구 간에 삼농정책경험 및 관련 농촌마을 간 교류를 추진한다.
  - 마을 만들기, 친환경농업 등의 경험을 대(對)중국 교류 콘텐츠로 정리하여 대(對)중국 교류 파트너 지역 내의 마을을 선정하고, 시범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양 지역간 교류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3) 단계별 추진전략

#### □ 단기 추진과제

- 중국인 입국관광객 유치전략 수립
  - － 중국인 입국관광객을 타겟으로 서울, 제주와 연계한 관광상품 및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관광객 수용기반을 확충한다.
-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한다.
  - － 서산-당진-천안 고속도로, 항만시설 확충
  - － 서울-인천, 청주공항 등과의 연계교통망 확충
  - － 서산해미비행장 민간공항 전용 여론 조성
- 개인별 체험, 테마관광상품 개발, 정책연수관광상품 개발 구상 틀 속에서 지역 특성의 삼농, 친환경 정책 성공사례 교류
  - － 중국인 입국관광객, 신혼여행 아일랜드, 한류와 전통문화 연결체험, 친환경농어업, 건강식품산업, 삼농정책 강화 등 테마 및 관광객 유형별 유치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 중국 교류파트너 지역 여행사와 합작으로 지역기반 중국 전담여행사 설립, 운영방안 추진
- 한중 산업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 － 지역특성, 친환경 농수산업 6차산업화 및 전략상품 개발
  - － 식품,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 － 한중 해양산업단지 조성
- 충남도의 관할 시·군과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내의 성, 시·현 지구 간에, 농업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과 농촌 지도자,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여 경험교류와 현장답사를 하는 (가칭)‘한중 3농포럼’을 조직·운영한다.
- 중국의 성(省)-시(市)-현(縣) 차원의 도농통합 및 일체화 발전, 신농촌건설, 농가숙식관광(农家乐) 등 관련 시범사업 현황 및 정책동향 조사연구 기반을 구축한다.
  - － 산둥성의 예를 들면, 농업 현대화, 신형공업화, 현대해양산업 발전, 산둥반도 고효익 생태경제구, 해양(蓝色)경제구, 현역(县域) 경제발전모형 등이 있다.
- 고급의료,건강,요양 연계상품 개발
  - － 의료관광은 단국대, 순천향대, 건양대 대학부속병원 소재 도시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
  - － 건강, 요양은 해안과 산악 자원 활용
- 충남도 중국사무소 역할 강화 방안 모색

## □ 중장기 추진과제

- 전략거점지역과의 교류협력 심화 및 네트워크 강화
  - － 2차 전략거점 개척, 확대
  - － 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네트워크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연결
  - － 교류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 및 관광객 유치전략과 연결 확대
- 정책연수관광상품 개발 및 다양화
  - － 친환경 농업 및 먹거리, 환경, 행복마을 만들기, 여가농업, 농어촌 체험관광 분야 등에서 시작
- 대도시와 지역 대표 관광지별로 중국인 개별 입국 관광객 수용기반 확충
  - － 중국전담여행사 확충 및 송출지역별 테마별 전문화 및 특화 추진
- 에너지 절약, 환경, 식품가공, 해양산업 분야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 분야간 한중 정부 및 기업간 협조체제 구축
- 산둥성 ‘산둥반도 남색경제구’와 저장성 저우산(舟山) ‘해양경제발전시범구’와 연계전략을 수립한다.
  - － 해양생태자원 활용과 관광자원 및 관광수용시설 개발건설 및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 <참고문헌>

- 박인성(2014), “중국 특색 농촌문제의 연원과 신형 도시화”, 성균차이나브리프, 통권 32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 박인성(2013),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도농통합정책 실험”, 지역과 발전, 11. 지역발전위원회
- 박인성(2009),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인성외(2000), 중국경제지리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경근외(2015), 중국경제의 뉴노멀화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보도자료: 2015.6.
- 林挺進外(2015), 中國新型城镇化發展報告, 北京大學出版社
- 单卓然, 黄亚平(2013), “新型城镇化概念内涵, 目标内容, 规划策略及认知误区解析”, 城市规划学刊, 2013-2(207)
- 范剑勇, 莫家伟(2013), “城市化模式与经济发展方式转变”, 复旦学报: 社会科学版(上海), 『区域与城市经济』2013年第10期,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 河北省推进新型城镇化工作会议召开 周本顺张庆伟作重要讲话. 人民网, 2014. 3.27
- 河北省出台推进新型城镇化意见 石家庄和唐山将成副中心城市. 新华网, 2014. 3.27
- 張衛國主編(2013), 山東經濟藍皮書. 山東人民出版社
- 陈映芳(2012), 城市中國的邏輯, 上海: 三联书店
- 徐憲平(2012), “面向未來的中國城鎮化道路”, 求是, 北京: 2012.5
- 张宗益主编(2011), 重庆统筹城乡发展实践, 重庆: 重庆大学出版社
- 孙久文·彭薇, 2010. “我国城市化进程的特点及其与工业化的关系研究”, 『区域与城市经济』, 2010年第4期. 北京: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 「中国改革报」, 2010.10.28: 2 版
- 杨小军(2009), “建国60年来我国区域经济发展战略演变及基本经验”, 现代经济探讨(南京), 2009.9
- 高新才(2009), “中国区域经济格局巨变与开发新秩序”, 社会纵横(兰州), 2009.10.
- 袁奇峰等(2008), 改革开放的空间响应, 广东人民出版社
- 中国改革报, 2010.10.28., 2 版